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지금부터 녹음 들어갑니다

“이거 뭐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문자를 언제까지 제가 받아야 하나? 아마도 100통은 더 받은 것 같습니다. 귀찮고 신경이 쓰여 짜증이 나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전화하지 않을 테니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주말이니, 월요일 직장에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전나무 진입로를 막 들어섰다. 순남의 전화벨이 한차례 울어댄다. 주변을 살피며 그녀는 조용조용 통화를 시도한다.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하는 그녀는 달리 전화기로 들려오는 상대방 음성엔 짜증 가득하다. 격정이 앞섰지만, 모르는 척 넘어갔다.”

“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아까 답변 드렸는데요? 최근 코로나 19로 가정통신문이나 전달사항이 많아 문자나 SNS로 전달사항을 학부모님께 전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전화번호를 잘못 알려주어서 그러니, 제가 학교에 가서 다시 주소록을 수정해 놓겠습니다.”

“10분 정도, 파란 하늘과 신록이 어우러지는 숲길을 지나 대웅전 근처에 이르자 전화벨이 울렸다. 숲길 가득 00도 사투리가 짜깁기 울려 퍼진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다.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던진다.”



박여범

용북중학교 교감·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아니, 이 양반아, 방금도 문자가 왔더니 뭐야, 이거, 짜증나게? 이제는 막말이다. 분명 통화의 시작은 ‘이 양반아’였다. 그래도 순남이는 침착하게 상대방에 과정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협조를 전달했다. 이런 그녀와는 달리, 상대방의 의도는 꼬투리를 잡았다는 자신감으로 ‘갑’과 ‘을’의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아니, 주말에 누가 문자를 보내겠어요? 제가 알아보고 문자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던지요! 알아서 해 보세요? 내는 대신 전화 안 할 테니 말이요?”

듣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듣게 된 통화 내용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순남의 태도였다. 그녀는 상대방의 지지분한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할 말은 다 하고 우리를 향해 미소로 화답했다.

“뭐야, 박순남, 안 죽었어, 걱정하

지 마, 괜스레 신경을 쓰게 했네. 누가 주말에 문자를 보내서 이 진상이 전화하게 만드는 거야?”

“어려운 문제면 같이 고민해요? 직장 동료들한테 물어봐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사실 다들 다들 대충 감이 오긴 해요?”

대장급 활영 장소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자유롭게 내소사를 눈에 담기 위해 움직였다. 화장실로 대웅전으로, 특산물 판매 장소로 이동하면서 추어 만들기에 정신이 없다. 그런데 순남이는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마무리한 내소사 나들이는 ‘노티나무’ 식당에 자리를 잡고 ‘바지락 칼국수’와 ‘산채비빔밥’을 덤으로 주문하였다.

“뭐야, 이 사람, 또 전화했네, 벌써 몇 번째야, 짜증나게? 어쩌자는 거야? 그때 순남이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 왔다.”

“네, 제가 문자 드렸잖아요? 다시 제 직장에서 문자가 오면, 스피어나 차단할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입니

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리고 제가 00도 말을 잘 알아듣기가 어렵네요? 또박또박 말씀해 주세요?”

“어쩌라고요? 뭐야, 이 사람, 00도 사투리라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네. 미치겠네.”

순남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내 나름대로 더듬어보니, ‘코로나 19, 문자, 학부모, 직장, 우리 아이, 잘못된 전화번호, 경상도, 스피어, 차단’이라는 단어로 얼추 정리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순남이와 눈을 맞추고 손짓으로 전화를 받아 들었다. 귀에 들려오는 상대방의 목소리는 그녀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았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고객센터? 무슨 문제인가요?”

“어라, 남지네. 아, 아, 남지다, 뭐야 당신? 남자 세네. 아, 욕이 나오네. 개00.”

“아, 고객센터, 직장 동료입니다. 지금부터 녹음 들어갑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법적 책임을 본인에게 있으신 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직원이 문자가 잘못 전달되어 월요일에 해결해 드릴 테니 스피어나 차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에, 네, 네네 영, 네 맞아요, 아, 네, 고객센터, 남지네, 남지? 어허, see랄, 고객센터이라고 니더러, 겁나 재수없네 DOG son, 녹음 지랄 영영, 튀튀.....”

“아, 네, 고객센터, 고객센터, 고객센터, 말씀하세요”.....

사설

방역 당국에 협조하는 시민 정신을

코로나와 관련해 이제 희망이 보이고 있다. 새로운 확진 환자의 수도 신규 사망자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불행 중 다행스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줄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퇴치의 희망을 굳히기로 들어가야 한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지만 방역 당국이 시민에게 호소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다.

계속 지적하고 있거니와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를 반면교사의 사례로 보아야 한다. 일본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등한히 했다. 그 결과 사태가 심각하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 수가 우리 한국의 그것을 넘어버린지 오래 되었다. 그리고 누적 사망자도 23일 아침 9시 기준 287명으로 한국의 240명보다 47명이 더 많다.유럽의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프랑스와 독일도 반면 교사의 사례로 보아야 한다. 그 나라의 국민들은 그동안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 협조하는 정신이 부족했는데 지금 아쉬움을 그치지

않고 있다. 다들 잘 알고 있는 바 미국의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코로나를 일반 독감 정도로 관망을 것처럼 말했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본보기가 되어버렸다. 23일 아침 9시 기준 누적환자가 83만7947 명에 이르다. 전날과 비교해 1만4천7백여명이 늘어난 숫자이다. 그리고 사망자도 4만6497 명으로 역시나 하루하루 1천6백여 명이 늘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로 세계를 이끌 자격이 있는 리더 국가가 맞는지 확신이 어려운 오늘이다

한국이 발병 국가들 중에 모범 사례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안심해선 안된다.우리 전북의 경우도 그렇다.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정적 지역이라고 해도 안심해선 안된다. 방역 당국이 호소하는 대로 해야 한다. 손을 의식적으로 자주 씻고,외출시에는 마스크를 끼고, 사람과 사람 사이 2미터 이상의 거리두기를 실천해 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퇴치의 희망을 확실히 해야만 한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전북도의 제 몫 찾기

정부가 코로나 19 이후의 플랜을 발표했다. 이른바 ‘코로나 뉴딜 정책’이 그것이다.고용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위해 문대통령이 직접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그 규모가 거대하다. 중앙의 언론사마다 보도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일자리를 50만개에서 60만 개 정도 만들 모양이다. 투자하는 금액도 89조4천억 원에 플러스 알파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다른 광역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철저하게 대비해야겠다. 이번예아말로 제 몫을 제대로 챙겨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의 발언이 소망스러운 때이다. 전북도는 제 몫을 잡아채는 열정을 가져야겠다. 그러려면 먼저 확실히 해둘 것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몫을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문은 물론 우리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지난날 반복해 말했던 바, 지역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은 이유를 전북도 관계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른 고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유감이다.

전북도는 제 몫 확보를 위해 끈질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제 몫 찾기에 보통 이상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전북도가 광주와 전남에 묻어 가거나 끌려가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이 전북보다 인구가 많고 경제권이 크다고 해서 그 래야 할 이유는 없다. 전북은 독립된 지자체이지 광주와 전남에 예속된 게 아니다. 드러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국가 예산을 보아도 영남권과 비교해 호남권이 푸 대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전북은 광주나 전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전북도는 정부의 일자리 뉴딜 정책과 관련해 제 몫을 대외적으로 말해야 한다.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지역의 발전상은 다른 지자체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전혀 발전 같지가 않다. 전북도는 고장의 낙후와 관련하여 도민의 마음 고생이 심함을 알아야 한다. 대외적으로 흉대를 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에서는 안 된다. 지역의 오랜 낙후는 도민들이 바라는 바가 결코 아니다. 다시 강조해 말하거니와 전북도는 이번 에 제 몫을 제대로 챙겨야겠다.

기고문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의 위험성과 예방을 위한 노력

도로 위 방갈 운전을 하는 경우 전조등이 지나치게 밝아 눈이 너무 부셔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큰 소음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는 차량을 수시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차량의 대부분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가스 방전식 전조등(HID) 설치 또는 규정이 색상인 아닌 전조등·방향지시 등을 사용한 차량, 그리고 철제범퍼를 불법 장착한 차량,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구조 변경한 차량 등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자신 또는 타인의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이를 가법게 생각하는 불법개조 차량 운전자들과 불법개조 관련

차별규정이 과태료에 그침에 있어 경찰의 직접 단속과 홍보에도 실제 제재효과가 미비함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HID 전조등의 경우 미주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일시적으로 시력저하 현상을 일으키는 사고위험 요소이며, 철제범퍼보호대 설치 등의 불법 개조 차량은 교통사고시 충격완화가 되지 않아 중상과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개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불법개조 부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 누구나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신용호

남원경찰서 도동지구대 경장

또한 자동차 검사기관에서도 정기적으로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그 순간만 다시 정상차량으로 구조변경 후 검사 후 불법 구조변경을 다시 함으로 실제 예방 효과가 거의

없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개조차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단 차량을 불법 개조함으로 인하여 풀이될 수 있는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운전자에게 인식시키고, 관련 법규 개정이나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후 경찰에서도 철저한 집중 단속으로 불법 구조변경을 막고, 시민들의 신고를 통하여 불법 구조변경을 수시로 찾아내서 적발해야 할 것이다.

생명과 직결된 교통사고 요인을 예방하고,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것이 경찰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라 생각한다. 신용호 남원경찰서 도동지구대 경장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Large graphic with a boat on waves and a sun/moon, containing text abou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humans who give courage and hope).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